

지역 소식통

고창군, 호남권 드론통합 지원센터 건립 주민설명회

고창군이 3일 오후 고창군 성내면사무소에서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성내면 이장단,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7만885㎡(약 2.1만평) 규모로 지어진다. 드론 이착륙장, 활주로, 실기 시험장 및 통합지원센터(비행 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비만 375억원에 달한다.

고창군은 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 결정, 토지매입 등 행정 절차와 실시계획을 마무리한 후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 추진

정읍시가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보수에 나선다. 정읍시는 제때 주택 보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66가구 선정, 상반기에 34가구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 418가구 중 232가구를 완료했고, 12가구에 대한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잔여 230가구에 대해 전기시설 점검,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지붕 개량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해당 사업을 동결기 전에 마무리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랑상품권 완판 초읽기

월 평균 판매액 전년(62억원)서 올해 85억원으로 37% 이상 증가... 조기 완료 예상

정읍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발행한 정읍사랑상품권 600억원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조기 완판을 앞두고 있다.

시는 조기완판의 원인으로 물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10% 할인 혜택을 주는 정읍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 추세를 꼽고 있다. 실제 월평균 판매액이 전년 월 평균 62억원에서 올해 월 85억원으로 37% 이상 증가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7월 말 기준 누적

5만 1000여명의 가입자와 5천 100여개의 업체들이 가맹돼 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시민들의 소비생활과 깊숙이 관련된 사업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정읍사랑상품권이 이달 초 전액 판매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중단에 들어간다. 할인판매 종료 후에도 보유한 정읍사랑상품권은 구매 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농민수당, 어민수당,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등 정책수당의 형태로 정읍사랑상품권을 지

급해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계속해서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고물가 장기화 추세와 소비경기 악화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정읍사랑상품권이 경영 안정과 내수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읍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침체된 골목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세계 청소년들은 고창읍성에서 성곽 트래킹, 전통악기, 서예, 다도 및 전통복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고창군 영외과정 활동 '웃음가득'

1만여 세계스카우트 대원, 고창읍성 · 선운사 찾아 전통문화 체험

고창군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했다.

전세계 청소년들은 고창읍성에서 성곽 트래킹, 전통악기, 서예, 다도 및 전통복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선운사에서는 사찰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템플트레킹과, 다도, K팝댄스, 어드벤처 숲체험 등을 함께했다.

특히 고창군은 폭염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실내공간 확보, 물 선종기, 물 터 등을 설치하고, 상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역별 정수기를 비치했

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행사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속에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있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라며 "잼버리 대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재밌게 즐기고 다시 찾고싶은 추억의 장소로 고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잼버리 기간 펼쳐지는 영외과정활동 프로그램은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명소의 특색을 보고 느껴볼 수 있게 준비되었으며 8월 2일부터 5일,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일간 진행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발품 행정 '구슬땀'

이정석 부군수, 기재부 찾아

지역 현안 국비 반영 건의

이정석 부군수가 부안군 역점 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건의를 위해 기재부를 방문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 또한 함께하며 중앙부처 설득에 힘을 실었다.

이번 방문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7월 28일 기재부를 방문해 발품행정을 한 데 이어 6월 만에 재방문하는 일정으로 정부예산안 확정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에 부안군 사업을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석 부군수는 먼저,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을 방문해 부안지역의 호우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용적·양산지구 논공단지 배수개선 사업(총사업비



248억원)과 백석지구 배수개선 사업(총사업비 74억원)에 대해 국지자원을 요청했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출포갯벌 치유센터(총사업비 170억원)와 서해안 선선타라이브 명소화 사업(총사업비 192억원)도 2024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조용범 사회예산 심의관을 방문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총사업비 198억원)과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사업(총사업비 50억원)을 건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농협 연계 지자체협력사업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기)는 3일 제2청사에서 2023년(2024년도 예산) 지자체협력사업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자체협력사업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지난 5월 지역 내 8개 농·축협에서 42개 사업(142억 800만원)이 신청접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 농·축협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읍시의



농업·농촌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협별 특화품목 육성기간(최소 2년) 및 내용기준 논의, 실무의견 협의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향후 지정된 특화품목이 단순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체험, 제품화하는 단계에 이르러 정읍시를 대표하는 특화품목이 될 수 있도록 특화품목 발굴 및 제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정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실익증대에 영항이 지대한 정읍시와 농협 상호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농촌지역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잼버리 영외과정활동장 운영 점검

부안 새만금 일원에서 지난 1일부터 개최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부안 곳곳의 영외과정활동장에서 부안의 매력을 온몸으로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이번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158개국 4만 3000여명의 청소년들은 영내 활동 뿐만 아니라 부안에 마련된 직소전, 부안영상테마파크 등 15곳의 영외과정활동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는 국궁, 씨름, 강강술래, 사물놀이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을 하고 있으며 변산반도실길에서는 마실길 트레킹, 부안예술회관의 반고흐 레플리카 전시회 관람, 부안을 투어를 함께 체험하고 있다.

또 품소젓갈발효식품센터에서는 품소젓갈을 활용한 김치담그기와 김치부침개 만들기 등 K-food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직소전에서는 패들보드, 부유수 수영장 등 영지 내에서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씻어줄 수 있는 수상체험에 흠뻑 빠져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일 공사포해수욕장 숲밧줄 놀이 과정활동장과 직소전 수상활동 과정활동장에 이어 3일 부안영상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과정활동장을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참가 스카우트들을 격려했다.

권익현 군수는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생애 최고의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